월/요/광/장

안 진

다시 생각해 보는 5월정신

5·18광주민중항쟁 27주년 기념행사가 27일 막을 내렸다. 여러 집단들이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5월은 무엇이며 5월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광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이 전국화·세계화되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과 조급함은 때로는 5월정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반인권적인 폭력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일까?

사태의 전모는 이러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후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관 앞에서 김 전 대통령 공식초청과 감사패 전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자 했다. 5·18기념재단과 함께 이를 주관했던 5월항쟁 관련단체 중 3개 단체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의 일부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사회단체 회원들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여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성폭력적인 언어도 난무했다. 피해여성은 언어폭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갑작스런 폭력 장면을 언론사의 기자들 뿐 아니라 인근 학교의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지켜보아야 했다.

말할 것도 없이 5·18기념문화관은 광주시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한국의 선량한 시민 모두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5월항쟁에서 희생됐던 5월 관련단체와 그 회원들은 광주시민의 자존심이며 한국민주주의의 산 증인이란 사실이다. 5월항쟁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광주시민들에게 한번 더 일어서달라는 정치인들에게, 더구나 지역분할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는 그들에게, 피흘렸던 자가 항상 피흘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고 되묻고 싶다.

그러나 의롭게 살았던 자에게 영원히 의로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기에 우리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젠 그만 그 힘든 역할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가만히 살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공식초청해 5·18묘지를 참배하게 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5월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되었지만 발포책임자 규명 등 역사적 진실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정치적 청산은 이루어졌을지 모르되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분할정치의 대부 중 한 사람인 정치인을-그가 비록 대통령 재임 때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신군부의 핵심을 법정에 세우는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은 대통령 개인의 영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상을 알리기 위한 사람들의 피나는 투쟁과 고통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의 불상사는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시민 대다수가 지지할 것이 명백하더라도 논의를 거치는 절차 자체는 필요했다. 그러나 정말 슬픈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입장의 차이, 의견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이 더욱 서글픈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다수가 지지하더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의 표출을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반대의견을 폭력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

5월정신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는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고 폭력이 아닌 설득에 의해 권력을 실현하기에 파시즘과 질적으로 다르다. 5월 관련단체들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적 상징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또 계엄군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했던 살아있는 정의이기에 비록 민주적 합의의 절차가 부족한 성급한 결정일지라도 당신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신뢰해온 필자에게 이번 사건은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한다.

폭력적인 방법, 더구나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그 주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내 안의 파시즘을 용인하는 것이기에. 〈광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안 형 준

진실한 모습과 연출된 행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공판검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매 기일마다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여 차분하게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너무나 훌륭한 법정 매너를 보인 피고인이 있었다.

그는 상습절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단정한 모습과 세련된 태도는 재판장뿐 아니라 공판검사인 필자마저도 과연 저런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훌륭한 매너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상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엽기적 연쇄살인범 유모씨의 검거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반항할 능력도 없는 여성과 노인 20여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

더욱 상세한 보도내용이 전해지면서 필자는 다시 한 번 경악했다. 상습절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그 매너 훌륭한 피고인과 희대의 살인마는,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단순절도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기간 동안에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상습강도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다른 곳에서 더 큰 규모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무고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일까. "불구속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적지 아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실한 모습과 연출된 행동을 얼마나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지.

연출된 모습에 속아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마땅히 엄벌 되어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실로 두렵다.

아홉 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근대 형사소송제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검찰로서는 그 아홉 명의 진범 혹은 불구속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는 아흔아홉 명의 범죄자들이 끼칠지 모르는 해악과 그로 인해 고통받을 무고한 시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자리에 검찰의 고민이 있다.

〈광주지검 검사〉

기 고

김 동 화

안전은 웰빙의 기본

일반적으로, '안전'하면 단순히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더 포괄적으로는 노령, 질병, 실업 등과 함께 안전을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해야 할 시점으로 '안전복지'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안전복지란 다양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뿐만 아니라 최근 기술진보, 기후, 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생활환경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를 뜻한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복지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복지 혁신포럼'을 실시하고 순천과 목포에서 강연회를 개최해 안전복지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안전복지운동의 일환으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란 도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불안전 시설을 도에 청구하면 무료로 점검하여 위험해소 방안을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전복지'가 그 위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전복지에 대한 우리사회 여러분야의 생활속에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 진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민간단체 위주로 안전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교육과 훈련에 대한 캠페인이 진행돼야 한다. 두 번째, 도시와 농어촌 각 마을의 지역 유지, 원로들을'민간 안전복지 보안관'으로 위촉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전복지운동이 추진돼야 한다.

세 번째, 각 직장단위의 민방위대나 향토예비군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이러한 조직들을 '직장 안전복지'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네 번째, 방재의 날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단위로 전국민을 통제하는 훈련은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방위훈련의 일부분을 전 국민, 지역, 직장단위 '안전복지 훈련의 날'로 활용하여 매월 안전복지가 실습되고 잘 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위의 지역 안전복지 운동을 통하여 그 추진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고 이러한 안전복지운동을 명예스럽게 여기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Safe Koera, Safe Jeonnam'을 실현해야 하겠다.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

가정위탁사업 정부 보조 턱없이 부족하다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직·질병·학대 등으로 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다른 가정에 위탁해 보호 양육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시범 도입됐다.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리 친부모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위탁된 아동은 물론이고 위탁보모, 친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위탁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육문제를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도와줄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의 가정위탁사업은 지극히 초보단계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의 양육보조금은 아동 1명당 월 7만원에 불과하다.

현여건으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이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아직껏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해외입양을 줄여야 할 형편이지만 경제난 등으로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은 계속 늘면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급등하는 국제 옥수수값 대책 마련해야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중으로 석유같은 화석연료 대신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 에탄올' 에너지인데 옥수수 등 농작물을 원료로 뽑아낸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축사료는 대부분 외국서 들여오는 옥수수를 사용한다.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쓰지 않고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전용하게 되면서 국제 옥수수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 농민들이 옥수수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려 하자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땅값도 덩달아 올라 결과적으로 국제 옥수수값이 급등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앞으로 선진국들이 본격 에탄올 생산에 나서 옥수수를 활용하게 될 경우, 옥수수를 대신할 대체사료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사료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료업계는 그때 가서 사료값이 비싸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광주·전남 대선공약 사업 발굴 서둘러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2월 대선과 관련한 지역 공약사업 발굴에 타 지자체 보다 소극적이라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호남표'를 의식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언하고 있으나 정작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지자체의 어정쩡한 대처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29일 광주에서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제정책 비교와 지역공약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공약사업을 공동으로 도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만 해놓고 아직껏 구체적인 논의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40여 개의 주요사업을 대선 공약사업으로 발굴했지만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말까지 공약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만 세우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 같은 태도는 이미 세부 공약사업을 확정해 대선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화 전략까지 세운 대구시나 전북도 등 타 시·도와 너무 대조적이다. 대선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따라서 누가 집권하든 대선공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일 될 수밖에 없다. 원내 제 1당 대선후보들의 공약토론회가 지역에서 열리는데도 구체적인 지역공약사업을 확정은커녕 협의조차 않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타 지자체의 대선 공약 요구사업 상당수가 광주·전남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현안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버스가 떠난 뒤에는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선 정국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선공약 발굴과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지리산 '대형 참사'

지난 25일 지리산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중학생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사고위험이 매우 큰 곳에서 안전수칙을 외면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관광버스 운전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은 낙제점이었다. 경찰은 브레이크 이상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비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를 불렀다는 것이다.

운전사는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 200m 앞에서 속도를 높여 추월을 했다고 한다. 천은사~성삼재 구간은 '마의 도로'로 불린다. S자형으로 굽어진 곳이 9.7㎞나 되고 경사도 20~30도에 달한다. 가파른 내리막 길에서 속도를 낮춰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까지 무시한 채 과속을 했다는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비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회사측은 매일 관광버스 점검일지와 배차일지를 쓰고 있다고 했지만 브레이크와 타이어 등에 대한 정비·점검에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분석을 의뢰한 만큼 정비·점검에 소홀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국의 안일한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구례군과 국립공원사무소 등은 가드레일을 비롯 충돌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타이어와 반사경 등을 설치했지만 위험도를 감안하면 역부족이다. 각종 안전장치의 보완이 시급한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개선돼야 한다. 이번 '체험학습'에 나섰던 상당수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행락 성수철을 맞아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인연'

크리스틴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다. 남겨진 자식도 없다. 갑자기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 그때 눈에 띈 수첩 하나, 20년 전인 17세 소녀 때 썼던 무도회용 수첩이었다. 그녀는 수첩 속에 담긴 남자들을 찾아 추억 여행을 떠난다.

수첩 속의 남자는 7명. 그러나 어느 하나 온전한 인생을 사는 이는 없었다. 사랑에 패배해 자살했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암흑가 폭력배로 전전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녀를 매혹시켰던 젊은이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희망과 꿈은 사라지고 실패한 인물들 뿐이었다.

변한 것이 그들 뿐이었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에게 고단한 삶의 잔상이 남았고, 그것은 그녀 삶의 궤적이기도 했다.

고전 영화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프랑스 영화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프랑스 사실주의 영화의 거장 줄리앙 뒤비비에의 걸작 '무도회의 수첩'(1937년) 줄거리다.

'그리워하는 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번 만났다. 세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국민 수필가' 금아(琴兒) 피천득의 유명한 '인연'의 한 대목이다. '인연'은 그가 17세 되던 해에 만난 일본 소녀 아사코(朝子)와의 평생에 걸친 만남과 이별을 소재로 한 수필이다. 교과서에도 실렸던 이 작품은 첫사랑의 설렘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명구들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피천득이 지난 25일 세상을 떠났다. 누구나 늙고 죽는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추억은 겹겹이 쌓이고 그만큼 그리움도 쌓인다. 만나서 좋을 사람도 있고, 안 만나니 못한 사람도 있다. 그렇더라도 젊은 시절에 대한 절절한 향수만은 어쩔 수 없다.

그는 수필 '봄'에서 이런 말도 남겼다. '지나 간 날의 애인에게서는 환멸을 느껴도, 누구나 잃어버린 젊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미련을 갖는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